

휴가철 디지털기기 이렇게 사용하라

산과 바다가 부르는 계절이다. 일상과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기 위해 많은 이들이 휴가를 떠난다. 떠나는 길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들 중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인 디지털기기. MP3기능과 카메라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핸드폰은 기본이고 즐거운 추억을 담아올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 이동 중의 지루함을 달래고 휴가지에서의 휴식에 감초역할을 할 MP3플레이어, 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노트북, 친절하게 길 안내 서비스를 해주는 내비게이션까지. 그러나 휴가지에서 디지털기기가 가장 많이 손상된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즐거운 휴가 기분을 망칠 수도 있다. 본 고에서는 휴가철 디지털기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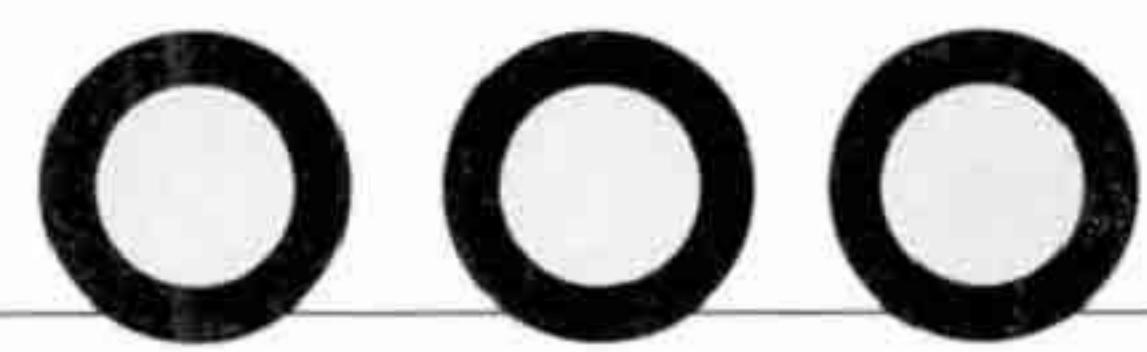
1. 물로부터 보호하라



휴가철 디지털기기의 손상을 초래하는 요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역시 물이다. 특히 소금기 있는 바닷물 또는 바닷바람은 디지털기기에 치명적이다. 디지털기기에 물이나 소금기가 들어가면 내부회로의 부식이나 합선을 일으켜 디지털기를 망가뜨린다. 따라서 바닷가, 계곡 등지에서 디지털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기계를 깨끗한 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일반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는 방수팩을 판매하고 있으니 반드시 장착한다. PMP나 MP3플레이어는 물가에서 되도록 먼 곳에서 사용하고, 투명비닐 등으로 포장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물이 들어갔다면 바로 전원을 켜지 말아야 한다. 우선 드라이어 등으로 충분히 말려 물기를 제거한 후 반드시 가까운 AS센터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모래로부터 보호하라

모래도 디지털기기와는 상극이다. 디지털기기의 버튼 사이 틈새나 이음새에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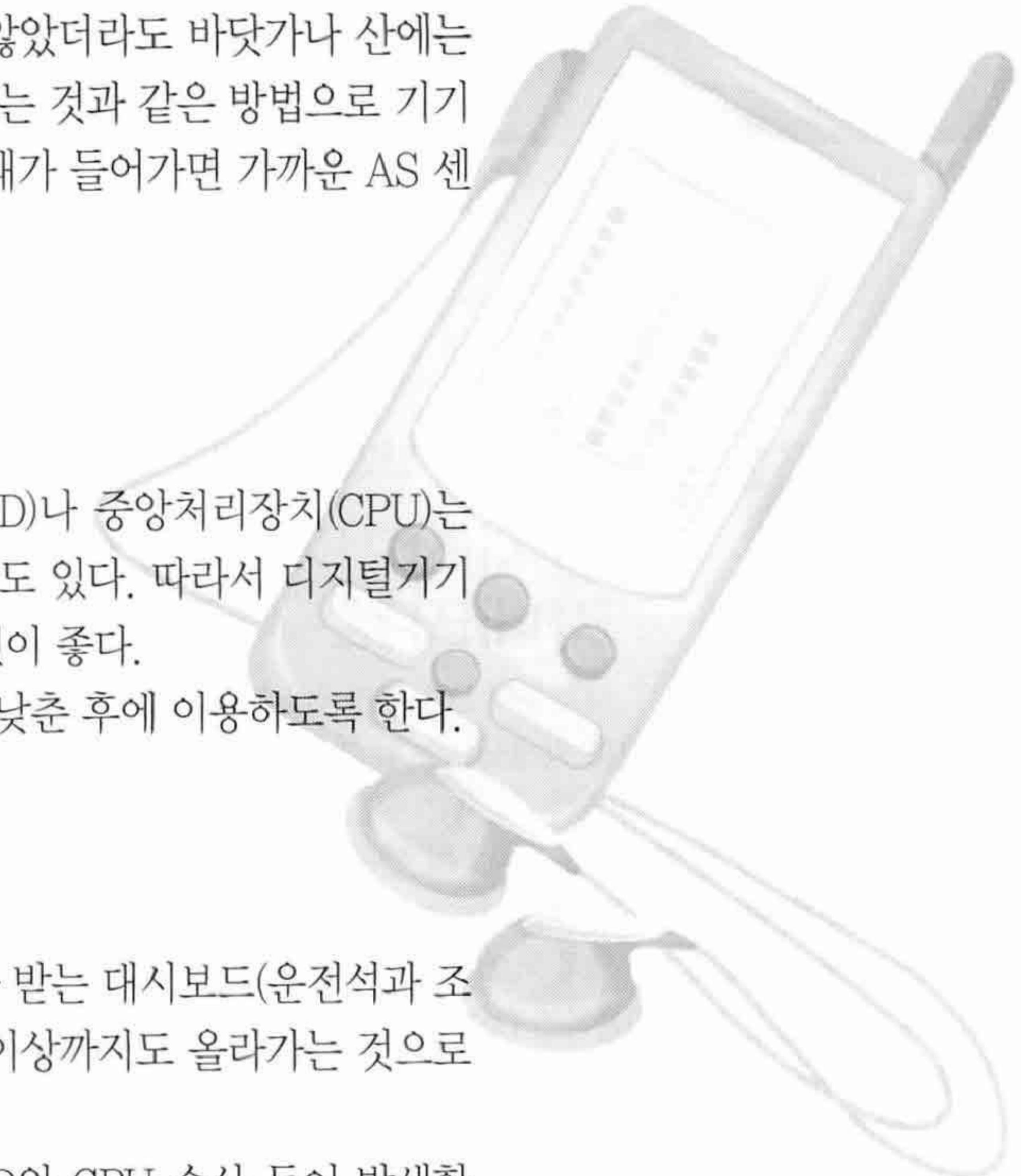


어가 버튼 불량, 접촉 불량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직접 모래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바닷가나 산에는 모래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을 피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기를 방수팩이나 비닐로 싸서 모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모래가 들어가면 가까운 AS 센터를 방문해 모래를 제거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직사광선을 피해라

여름철 직사광선도 디지털기기에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액정표시장치(LCD)나 중앙처리장치(CPU)는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파손된다. 배터리의 경우 고온으로 폭발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기기를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휴대용 케이스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일단 직사광선에 노출된 기기는 바로 작동하지 말고 시원한 곳에서 온도를 낮춘 후에 이용하도록 한다.



4. 차량에 방치하지 마라

여름철 한낮의 차량 내부온도는 섭씨 70도 이상 올라간다. 직접 직사광선을 받는 대시보드(운전석과 조수석 정면에 있는, 운전에 필요한 각종 계기들이 달린 부분)의 경우 9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부착돼 있는 내비게이션의 경우 이런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LCD와 CPU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의 정상 작동 온도는 5~45도 사이다. 장시간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디지털기를 직접 휴대하는 것이 좋다. 휴대가 어려우면 콘솔박스나 트렁크에 보관해 직접적인 고온으로부터 보호한다.

고온에 노출된 기기는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식힌 후에 작동해야 고장을 막을 수 있다.

5.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라

디지털기는 작은 본체 안에 여러 부품과 회로가 밀집돼 있어 충격에 약하다. 특히 기분이 들떠있는 휴가철에는 기기에 충격이 가해져 손상을 입기 쉽다. 배터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회로부 합선으로 화재나 폭발할 위험도 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이동시 항상 목끈이나 손목끈으로 기기를 고정하는 것이 좋다. 가방에 보관할 때는 푹신한 수건 등으로 감싸 준다. 또 차량에 보관할 경우에도 콘솔박스 내부 등 완전하게 디지털기가 고정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급정거를 했을 경우에 디지털기가 떨어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도난을 조심하라

여름철 휴가지에서는 도난사고가 빈번하다. 많은 사람이 몰려 치안이 허술한데다, 고가의 디지털기도 많기 때문이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줄, 손목줄을 항상 착용해 기기가 같이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가방에 넣어놓을 시에는 반드시 지퍼를 채워 쉽게 꺼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에 내비게이션이나 디지털기를 놔둘 때는 보이지 않도록 콘솔박스나 트렁크에 넣어 둔다.

제품번호를 미리 제품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는 것도 좋다. 도난 됐을 경우 도난물이 AS 센터에 들어왔을 때 찾을 수도 있다.

